

2019 특별메세지 - 하나님의 사람 II. 은총의 사람, 하늘이 열린다.

1. 은총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무상으로 주시는 선물. 은총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로운 태도나 호의.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하신 모든 일을 뜻한다. 하나님의 은총은 당신 자신을 인간에게 선물로 내놓은 것에까지 이어진다. 또한 은총은 우리가 선을 행하도록 우리를 비추는 초자연적인 힘(도움)이다.’

은총은 내 힘이 제로가 된 상태를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 힘이란 ‘육의 힘(죄의 본성에 근거한 힘)’을 말한다. ‘자기’에 대한 바른 정의가 필요하다. 하나님만 강조하고 ‘사람-자기’를 일방적으로 무시하는 개념이 아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자기의 개념은 타락된 죄의 본성, 파멸의 인간을 말한다. 탐욕이라는 죄의 본성에 근거한 자아에 대한 거부를 말한다. 당연한 것이다. 바로 죄인 된 자아의 정체성의 바른 자각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공간을 만든다. 절대적 도움을 구원으로 여기며 받아들인 사람, 그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상태가 은총이다.

은총은 인간의 정체성이 ‘날 것(?)’처럼 드러난 상태를 말한다. 창조의 모습 그대로의 사람이다. 하나님 없이 존재하지 못하는 창조의 모습의 사람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의 사람이다. 에덴동산에서의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가장 분명해진 축복의 정점에 있는 인간의 모습이다.

[창세기 1:28]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모든 만물을 축복하는 가장 소중한 존재의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은총입은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이다. 신앙은 그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다. 내가 처한 상황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거듭남). 모든 속박에서 벗어난 자유인의 모습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나를 발견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다시 하나 된, 친밀감의 회복(관계의 회복)이 된 상태를 말한다.

2. 죄 - 자기를 미워하고 파괴하다.

죄는 파괴력이 있다. 하나님이 죄를 멀리하고, 죄에 대하여 단호하신 태도를(심판) 취하시는 이유는 분명하다. 죄의 결과는 정체성의 사망이며 파멸이다. 죄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완전한 친밀감을 파괴해 버렸다. 그 결과는 ‘자기’에 대한 수치심, 정죄감이다.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고, 파괴하고, 미워한다. 자기를 스스로 미워하는 상태이다. 이 모습이 바로 ‘두려움’이다. 숨고싶은 마음 (나무뒤에 숨은 사람)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해 나무 뒤로 숨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습을 싫어하는 것이다. 드러난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받아들이지 못한 모습이다. 결국 이것이 내 마음에 갈등으로 나타난다. (로마서 7장의 두 자아) 하나님을 붙잡고 싶고, 붙잡을 수 있는데, 붙잡지 못하게 하는 마음이다.

3. 은총 -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 오셨다. 구원(rescue), 회복, 재건(restore)이다. 십자가 위에서 내가 피하고 싶은 죄인 된 자아를 해결하신 것이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재난의 상태에서 나를 구조하셨고, 또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 시키셨다. 그 모습은 내면 안에 있었던 두려움의 문을 스스로 열게하는 갈망으로 우리 안에 남게 되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다시 회복된 것이다.

4. 은총입은 사람들 - 하늘이 열리다.

우리 예수님 위에 하늘 문이 열린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 회복된 우리들 위에 다시 하늘이 열렸다.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하나님과 다시 하나 될 수 있는 지성소의 공간이 열렸다는 것이다. 담대하게 지성소로 스스로 들어갈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난 것이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이 바로 하늘이 열린 상태이다. 그 대표적인 몇 사람이 있다.

(1) 혈루병 여인

[마가복음 5:26-28]

26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27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28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29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르매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처참한 자신의 모습, 그리고 모든 것이 막힌 상황의 혈루병 여인. 이 여인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은 단 하나이다. 하늘이 열리는 것이다. 하늘문의 열쇠 예수 그리스도만 남았다. 결과적으로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다. 그리고 고침을 받았다. 그렇다면 왜 이 여인이 고침을 받았겠는가? 그 이유가 27절이다. 자기 상황은 최악(26절)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붙잡았다. 그 마음이 바로 은총입은 사람의 모습이다. 그 순간 하늘이 열렸다. 29절 '이에 그 혈루 근원이 곧 마르매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무엇이 은총인가? 온전하고 완전한 모습이 아니다. 예수님을 붙잡을 수 없는 절망의 모습이다. 그런데 예수님을 붙잡았다. 예수님을 붙잡은 것이 은총이며, 그 마음이 생겨난 것이 은총이다. 예수님을 붙잡기 전에 그 여인의 마음 안에 이미 하늘이 열렸다.

은총의 개념을 다시 알아야 한다. 온전하고 완벽한 모습이 아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은총이 임하는 것이다. 혈루병 여인이 부족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붙잡은 것이다. 이것이 믿음이다. 이 마음이 생겨난 것이 믿음이다. 그러므로 절망과 고통의 순간이 바로 하늘문이 열리는 순간임을 알아야 한다.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은총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나는 은총의 사람이다. 그 은총이 하늘을 열게 한다.

(2) 다윗 - 은총 입은 자, 다윗

[사무엘상 18:16]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자기와 상관없는 일방적인 축복이 은총이다. 다윗이 은총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이 위의 말씀에 나타나 있다. 온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윗을 사랑했다. 즉, 다윗을 향한 마음이 항상 열려 있었다는 것이다. 다윗이 무엇인가를 잘해서 사랑한 것이 아니다.

조건 없이 다윗을 좋아했다. 다윗이 한 일은 그들과 함께 있었다는 것뿐이다. 다윗은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었다. 그 마음이 바로 은총이다. 사울을 보라. 사울의 마지막을 보라. 모든 사람들이 함께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 그의 죽음은 가장 쓸쓸하고 비참한 외로운 죽음이었다.

예수님 주변에도 언제나 사람들이 많았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았다. 자기 상황은 어려워도 저 사람과 함께하면 힘이 날 것 같은 마음, 용기가 생기는 마음, 손 한번 잡아주면 해도 힘이 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은총 입은 사람이다.

은총의 사람이 되어라. 은총이 임하는 자리로 사모하고 찾아가라. 은총입은 사람 옆에 있으라.
그것이 지혜이다. 지혜는 하늘의 축복을 보는 눈이다.